

가구업계, 신제품 출시·팝업 행사… 비수기 극복 ‘구슬땀’

한샘 ‘도도 부클 패브릭’ 선패
시몬스 ‘마르코니’ 리뉴얼 출시
에이스침대 헬로썸머 기획전
현대리바트 가구 연구소 팝업

가구업계가 신제품 출시, 팝업 행사, 할인 판매 등을 통해 비수기에도 고객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샘은 1인 가구를 위한 암체어 ‘도도 부클 패브릭’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작은 크기로,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소형 주거 공간에 적합하다.

360도 회전이 가능한 스윙블 기능을 갖춰 한 자리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 TV를 보다가 책상 쪽으로 돌아앉거나 창가를 향해 휴식을 즐기는 등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며 손님과 대화 시에도 시선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부클 원단을 사용해 부드럽고 튼튼한 패브릭 소재로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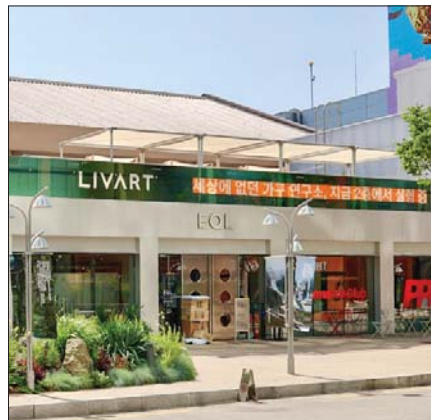
도도 부클 패브릭 암체어.

/한샘



뷰티레스트 마르코니.

/시몬스



‘세상에 없던 가구 연구소’ 팝업 행사장 /현대리바트

시몬스는 리뉴얼한 ‘뷰티레스트 마르코니(Marconi)’ 신제품을 내놔다.

마르코니는 매트리스 상단부에 ‘플러시필로우탑’을 추가해 고급스러움은 물론 부드러운 쿠션감을 더해 침대에 누는 순간부터 구름 위에 누워 있는 듯한 편안함을 선사한다.

고밀도의 우수한 탄성을 지닌 ‘BD 폼’을 통해 지지력을 한층 강화했으며, 최적의 하중 분산으로 안락함을 제공하는 에어밴드식의 ‘ABS파이브존 폼’을

적용해 신체 각 존 별로 서로 다른 탄력으로 몸을 균형있게 받쳐준다.

특히 마르코니에는 시몬스 뷰티레스트 모델들처럼 국내에서 제조하는 포스코산 경강선에 ‘바나듐(VANADIUM)’ 소재를 적용한 포켓스프링이 내장됐다.

에이스침대는 6월을 맞아 에이스침 대물에서 ‘헬로 썸머(HELLO SUMMER)’ 온라인 기획전을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

기획전에선 좁은 방에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인 가구 및 자녀방 맞춤 침대 ‘오마조(OMAGGIO)’, 마일드한 월넛 컬러와 가죽 질감이 조화로운 ‘BRA1439’를 비롯해 ‘BMA1119’, ‘BMA1086’, ‘BRA1433’ 등을 할인 판매한다.

2인용 침대도 LED 조명으로 고급스러운 무드를 연출하는 아트월 컨셉 침대 ‘루체-III(LUCE-III)’, 백조 날개 형상의 헤드보드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아르노-II(ARNO-II)’, 유니크한 패턴이 매력적인 호텔형 침대 ‘BMA1164’, ‘BMA1148’, ‘BMA1150’ 등도 선보인다.

에이스침대는 해당 기간 신규 회원 할인 쿠폰 선물, 행사 제품 할인 쿠폰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리바트는 소비자와 점점 확대를 위해 이달 29일까지 서울 성수동에 있는 한샘 플래그십 스토어 ‘EQL GROVE(이큐엘 그로브)’에서 ‘세상에 없던 가구 연구소’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에선 가구 디자이너가 꽃잎·폭포·신전 등 자연과 일상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한 아이디어 스케치 작업물과 해당 아이디어가 제품화되는 가구 제작 과정 등을 선보인다. 또한 해외 명품 가구의 필수 요소로 여겨지는 ‘곡면 가공 기술’을 공개하고, 해당 기술로 원목 프레임을 곡선으로 제작해 적용한 ‘아르베 소파’ 등을 전시한다. 이외에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도 준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화큐셀, 美 태양광 모듈 재활용 사업 본격화

‘에코리사이클’ 신규 브랜드 론칭
조지아주 재활용 센터 건설 예정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태양광 공급망 내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폐모듈 리사이클 사업 관련 신규 브랜드를 론칭했다.

한화큐셀은 미국 태양광 모듈 재활용 사업 브랜드인 ‘에코리사이클 바이 큐셀(이하 에코리사이클)’을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코리사이클은 미국에서 효율적인 폐모듈 재활용 솔루션을 마련하고 한화큐셀의 태양광 공급망 내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에코리사이클은 올해 하반기에 미국 조지아주 화이트에 연간 최대 50만 장의 모듈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다. 에코리사이클은 발전소에서 철거된 폐모듈의 운송 서비스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재활용 센터는 수거된 폐모듈을 처리하며 알루미늄

EcoRecycle
by acells

에코리사이클 바이 큐셀 로고.

/한화솔루션

늄, 유리, 은, 구리 등 고부가가치 자원을 분류, 추출해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신규 모듈 생산에 적용할 방침이다. 에코리사이클은 금번 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향후 미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한화큐셀은 에코리사이클이 추출한 자원을 사용한 업체로부터 태양광 모듈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모듈 제조에 재투입해 제조-사용-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경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화큐셀은 모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태양광이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20여 년이 지난 만큼 근시일 내에

크게 늘어날 폐모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코리사이클링 법인을 설립하고 센터 건설 계획에 착수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2030년까지 누적 21GW(기가와트)의 폐모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생량은 이후로도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연방 차원에서는 폐모듈 재활용의 법적 의무화 조치가 없어 대부분 매립되고 있으나 주(州) 차원에서 재활용 의무화 법을 제정한 위싱턴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지역적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한화큐셀은 제품 생산, 폐기물 수거와 재활용을 모두 수행하며 자원의 선순환 고리를 확립하기 위해 에코리사이클 사업을 새로이 론칭한 것”이라며 “에코리사이클의 첫 번째 센터 설립에 이어 미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태양광 산업계의 지속 가능성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화에어로, ‘L-SAM-II’ 개발사업 참여 (고고도요격유격탄)

국방과학연구소 2000억 규모 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성층권(10~50km)을 뛰어넘는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고고도요격유격탄(L-SAM-II)의 유도탄 체계종합 등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방과학연구소와 L-SAM-II 유도탄의 기술 통합과 검증 등의 체계종합과 발사대 등 총 1986억원의 시제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L-SAM-II는 기존 L-SAM 요격고도(성층권 이하)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탄도탄을 요격하는 무기체계다. L-SAM 대비 방공 영역을 3~4배 늘릴 수 있는 ‘K-방공 완결판’으로 평가받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국과연과 L-SAM 대탄도탄 유격유도탄(ABM, Anti-Ballistic Missile) 체계 개발에 참여해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을 준비 중이다. 오는 2028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L-SAM-II 유도탄의 핵심기술은 위치자세 제어장치(DACS), 추진기관 등이다. 위치자세 제어장치는 10개의 추력 조절 밸브를 이용해 직격요격체(Kill Vehicle)가 탄도탄을 직격 요격(Hit-to-Kill) 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기술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하고 있다. 추진기관 또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수준의 고도까지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L-SAM보다 더 빠른 시간에 요격고도에 도달할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다층 방공망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핵심 기술을 확보해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 K-방공망 수출에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시멘트協 “2030년 석회석 대체율 2% 목표”

2025 섹텍 아시아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전략 발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멘트 업계가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등 지속가능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10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025 섹텍 아시아(2025 Cemtech Asia)’가 지난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전 세계 시멘트 산업 전문가가 약 300명이 참석해 탄소 감축 동향과 최신 기술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전근식 시멘트협회장은 개회식에서

“전세계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멘트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고 기술 진보를 공유하는 ‘2025 섹텍 아시아’를 서울에서 열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미래 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시멘트 산업으로 발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멘트협회는 ‘2050년 국내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달성 전략 계획’ 발표를 통해 시멘트 제조시 핵심 원료인 석회석을 저탄소 원료(비탄산염원료)로 대체, 2030년까지 석회석 대체율을 2%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전근식 한국시멘트협회장이 섹텍 아시아 2025 현장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시멘트협회

밝혔다.

또 화석연료인 유연탄 사용을 줄이고 폐합성수지 등 순환자원이나 바이오매스, 수소 등 무탄소연료 사용을 늘려 역시 2030년까지 순환자원 대체율을 8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교원 웰스, 유럽서 첨단 정수기술 뽐내

업계 최초 ‘블레드 워터 페스티벌’ 참여

교원 웰스가 국내 정수기 업계 최초로 유럽 최대 물 포럼인 ‘2025 블레드 워터 페스티벌(Bled Water Festival 2025·BWF)’에 공식 초청을 받아 정수 기술을 알렸다.

교원 웰스는 지난 4~5일 열린 ‘BWF 2025’의 ‘현대 물 기술 솔루션’ 세션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 자사만의 독보적인 정수 기술인 ‘미네랄 필터 시스템’을 소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원 웰스는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하면서 칼슘, 마그네슘, 규산 등을 추가해 건강과 환경을 아우르는 차세대 정수 기술로

주목받았다. 특히 지난 4월 출시한 직수정수기 ‘슬림원’이 광천수 수준 수질 구현과 자원 효율화를 동시에 실현하면서 현지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교원 웰스는 유럽 물 산업 주요 기관 및 기업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실질적인 교류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략적 제휴 및 기술 협업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 적합한 제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원 웰스 관계자는 “슬림원의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글로벌 소비자와 접점을 넓히며 다양한 협력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